

###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기업 카코뉴에너지

# 군산으로 공장 이전 협약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26일 전북도 정부부지사실에서 진홍 정무부지사, 김형철 군산시 경제환경국장, 최석진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코뉴에너지(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카코뉴에너지(주)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 법인은 2007년 설립되어 태양광 인버터를 전문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선도기업이다.

카코뉴에너지가 생산하는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되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변환시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바꿔 주는 중요장치로 태양광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카코뉴에너지는 국내 태양광 인버터시장에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국내 첫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에 참여해 한전에 납품에 이어 최근에는 한전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에는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카코뉴에너지의 전북 군산이전으로 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태양광산업의 중요기술인 컨버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전북에서 생산함으로써 전북의 산업기술력 향상과 R&D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코뉴에너지는 수도권 소재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공장을 운영

중에 있었으나, 높은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직시해 그동안 전북도 투자유치과에서 2년여 동안 삼고초려하면서 카코뉴에너지 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도 군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에 분사 및 사업장 이전을 결정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매우 뜻 깊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후문이다.

진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카코뉴에너지(주)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가 되어 주길 당부 드린다”면서 “도와 군산시는 카코뉴에너지(주)의 파트너가 되어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국가표준식품 성분표 '제9개정판' 공개  
고 있다.

김행란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식품성분표의 양과 질을 대폭 확대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을 공개하고 있다.

## 전북 상용차 분야 발전 '머리 맞대'

H-융합콘퍼런스 개최... 도내 40여개 산학연관 협력 강화

제2회 H-융합콘퍼런스 및 상용차 산업 기술동향 세미나가 26일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H-융합 콘퍼런스는 전북도가 주최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 전북 상용차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주제를 선정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대학 산학협력단,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40여개 산학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북도와 김제시 등 지자체와 완성차인 현대자동차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 산학연 융합생태계 조성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ICT, BT(Bio Technology), 응용SW 분야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상용차 부품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주제를 선정, LG경제연구원의 스마트팩토리 성공 구축 전략 과 (주)연우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성공사례 강연을 했다.

도내 기업들도 이러한 최신 기술개

발 동향에 따른 다양한 협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과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도와 기술원은 앞으로 상용차 분야 산학연 네트워크인 "H-융합 콘퍼런스"를 기반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 발굴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상용차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도내 기업들이 미래형 제조공장의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융합 기술·협업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 문 정부, '창조' 지우고 새로 쓴 '혁신'

조직관리부서 명칭 변경... 고용부, 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조직명칭(직제)에서 '창조'를 빼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로 해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6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변경해 고용부 창조행정담당관이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다음주에 바뀔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처내 조직명칭에서 '창조'를 빼내

는 작업은 고용부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도 '창조'를 빼내는 등 부처명 개편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모든 부처가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창조'를 떼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던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으로 4년을 일한 만큼 참여정부 당시 정책이나 비전 등을 국정운영에 참고하려

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참여정부 시절 현 창조행정담당관의 직제명은 '혁신기획관'이었다. 청와대 조직과 운영 등에서도 '참여정부 코드'를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담당하는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을 되살리는 등 참여정부 시절 보좌관 체계를 부활시켰다. 비서실 산하의 국정상황실도 다시 만들었다.

/뉴시스

##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대규모 인적쇄신 작업 본격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2개월 만에 검찰조직의 수장이 자리를 잡게 됐다. 검찰 최고수뇌부인 고검장 인사와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인적쇄신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주말사이 검사장 승진 대상자 31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마친 상태다. 인사검증은 대상자는 22기와 23기 검사들이 주를 이뤘고 일

부 24기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 심의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보직 결정이 이뤄진다.

검찰 정기인사는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거치면서 미뤄져 왔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대

상으로 입건된 상황인사여서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날 중 검찰 인사가 단행된다면 2015년 12월 이후 19개월 만에 인사가 된다.

검찰 인파에서는 늦어졌던 인사가 단행되는 만큼 이번 인사의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위직 상당수가 공석인 상태라 연례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사의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뉴시스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공사 '첫 삽 떴다'

도의회 문건위, 기공식 참석 관계자 격려... 투자유치 활성화 신호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26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착공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은 총 연장 26.7km 4개 공

구로 나뉘어 건설되는 사업중 새만금 산업단지 주변 3·4공구 12.7km 구간을 6~8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공되는 동시대도로와 연계되어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의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 촉

진과 향후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건위원들은 "새만금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북 남원시 갈치동산 58-2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태양광사업)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5. 개장 후 장소: 전북 남원시 숲터길 40-36(남원승화당)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처: 장관영(Tel. 010-3680-5147, 010-5330-6258)
9. 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고방법: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등)를 구비해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6일  
공고인: 장관 영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